

# GIST 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이 CES 2025 참관 혁신기술 최신 동향 직접 체험

- 2024년 입학 제1기생 22명, 이동선 학과장·신현진 교수와 함께 CES 2025 참관하고 돌아와... 앞으로도 장학 혜택으로 2개 학기 이수한 학생 전원 CES 참관 지원 예정
- “미래 엔지니어에 대한 성장 동기 부여의 의미... 연구와 커리어에 긍정적 영향 기대”



▲ GIST 반도체공학과 24학번 22명의 학생과 이동선 학과장, 신현진 교수가 CES 2025를 참관하고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지난 1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현지 시간 기준) 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이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5’를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반도체공학과 의 첫 신입생인 2024학번 학생 22명과 이동선 학과장, 신현진 교수가 참여했다.

작년 3월 문을 연 GIST 반도체공학과는 삼성전자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로서, 반도체 전문 인재로 성장할 제1기 입학생 28명은 지난 1년간 1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번 ‘CES 2025 해외 견학 프로그램’은 반도체공학과가 제1기 입학생을 대상으로 최신 글로벌 기술 동향과 혁신 산업의 발전 방향을 현장에서 체험함으로써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반도체공학과는 장학 혜택으로 학사과정 2개 학기를 마친 재학생 전원에게 CES 해외 견학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올해 휴학 또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학생에게도 졸업 전까지 CES 1회 참관을 지원한다.



▲ GIST 반도체공학과 24학번 22명의 학생과 이동선 학과장, 신현진 교수가 CES 2025 참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ES 2025를 참관한 박상경 학생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IoT,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스마트 홈 및 스마트 시티와 같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또한 **상용화 방향성도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동선 학과장은 “CES 2025 견학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엔지니어로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이 **학생들의 연구와 커리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8년까지 매년 30명씩 총 150명을 학·석사통합과정으로 선발하는 GIST 반도체공학과는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실무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산업체의 요구에 맞춘 반도체 연구 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